
내가 해온 일



이동근

Intro

「불광불급」이란 단어는 제가 일생의 신조로 삼고 있는 인생 모토입니다. 노력만 하는 사람은 절대 재능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재능 있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 ‘미치는 사람’ 일 것입니다.

저는 ‘미쳐야 미친다.’고 생각하며, 그 어떤 분야든 미쳐서 하게 되면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 처럼 1만 시간 이상의 노력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 ‘아웃라이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낭중지추’가 되기 원했고, 칸딘스키가 말한 삼각형의 꼭지점처럼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선구자가 되기 원했습니다.

이하에서는 저의 그러한 노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결실을 맺었었는지를 역설하고자 합니다. 제가 강조했던 저의 인생에서의 태도가 법학을 수학하는데 있어서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목 차

경찰에서의 해온 일	4
1.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업적	4
(1) 서설	4
(2) 기획업무	4
(3) 조직업무	6
(4) 성과 업무	6
(5) 법제 업무	7
(6) 기타	7
2. 컴퓨터 지식을 활용한 업무 혁신 사례	8
(1) 수사서류 작성 지원시스템	8
(2) 수사도우미	9
(3) 기타	10
사기업에서 해온 일	12
(1) 검사정보 시스템의 개선	12
(2) 연말 정산 업무의 완벽한 수행	14
(3) 규칙의 정리 등 기타사항	14
맺음말	16

1.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업적

(1) 서설

저는 경찰 생활의 마지막을 ‘경찰교육원’에서 보냈습니다. 남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직무량이었지만 저는 그곳에서 가장 많은 때는 기획, 혁신, 성과, 조직, 법제, 홈페이지, 온-나라시스템(전자문서시스템) 도입 등 페이지워크로 할 수 있는 극한의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업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저는 경찰생활의 많은 부분을 주로 기획파트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나름의 노하우가 존재했습니다. 오히려 저의 보고서들은 경찰청(이하 ‘본청’이라 하겠습니다.)에서 자주 샘플로 타지방청에 열람시켜줄 정도였으니 질적으로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경찰교육원이 커다란 변혁을 겪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령층이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그 모든 것들 다 해냈다는 것은 실로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2) 기획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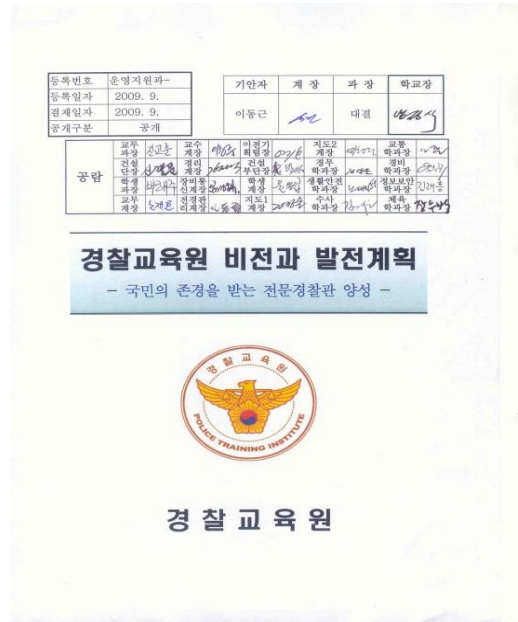
저는 경찰교육원의 전신인 ‘경찰종합학교’시절부터 그곳에서 근무해왔습니다. 2009년 경찰종합학교가 충남 아산으로 이전하면서 여러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저는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선, 명칭 변경 작업을 제가 했습니다. 낡은 명칭인 ‘경찰종합학교’가 왜 새로운 비전을 내포한 ‘경찰교육원’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거 마련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제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기존의 타성을 깨고 명칭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령의 변경을 요구하는 업무이므로 명칭 하나의 변경도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이름에

는 그 안에 철학이 들어가므로 정체성을 바꾸는 후속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명칭 변경을 통해 기존의 '경찰종합학교'에 '경찰교육원'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고 새로이 전문경찰교육기관으로서의 좌표 정립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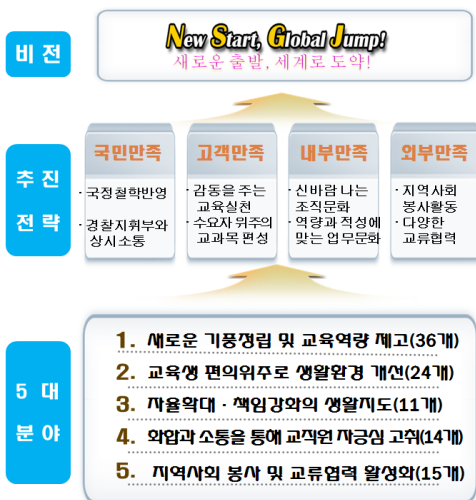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경찰교육원 비전과 발전계획」 책자를 만들어 경찰교육원의 중장기 전략을 새롭게 짚습니다. 5대 분야 37개 실행과제를 체계적으로 작성함으로써, 조직을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었다고 자부합니다.

물론 전적으로 저의 혼자만의 작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총 71쪽의 방대한 분량 중 대부분이 저의 손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첨부1 : 경찰교육원 비전과 발전계획 1부]

경찰교육원 발전과제 추진상황
- 5대분야 100개 과제 -



또한 제가 민간기업에 스카우트되어 가는 바람에 미완성으로 남겨 두었지만 「경찰교육원 비전과 발전계획」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세부계획인 「경찰교육원 발전과제 추진상황」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총 5대 분야 100개 과제입니다.

책자를 만든다는 것은 책자의 내용만큼의 업적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이에 대한 글로서의 정리 역시 창작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제 후임으로 온 선배분이 이를 잘 정리하여 책자로 완성하였다고 들

었을 때는 매우 뿌듯하기도 하였습니다.

[첨부2 : 경찰교육원 발전과제 추진상황 1부]

(3) 조직업무

저는 경찰교육원의 조직 업무를 3년간 맡았습니다. 경찰교육원은 총 138명밖에 근무하지 않는 경찰 내에서 매우 작은 조직이어서 조직 업무가 일견 쉬어 보이나, 제가 맡았을 때는 거대 지방청들보다 훨씬 어려웠고 아마 그래서 제가 그 업무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방 경찰청급인 경찰교육원은 경찰종합학교에서 경찰교육원으로 변화함에 따라 조직 개편 업무가 많아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국 그 어느 경찰조직보다도 조직업무에서 탁월했다고 자부합니다. 조직 증원요구를 하는 보고서가 흠잡을데 없었고 관련 연구자료를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경찰교육원으로 바뀔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 14명을 증원 요구하여 실현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사무분장이나 인력 조정은 당연하게 하는 일입니다.

(4) 성과 업무

저는 4년간 조직원의 성과평가업무를 하였습니다. 지방청에 있을 때부터 계속하여 성과평가 업무를 하였고, 직원들의 연말 성과금은 모두 제 손을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성과평가업무를 하면서 한 번도 불합리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고,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말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당당하고 자신 있게, 그리고 높은 도덕심으로 조직의 문화를 성과위주로 바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원들의 성과평가 뿐만 아니라 피평가 업무도 성공적으로 수

4. 경찰보수교육사업 (일반회계, 기타직접)

*담당자 : 운영지원과장(총경 조항진), 총무계장(경정 서민), 경위(이동근), 041)536-2215

1) 평가결과

	계	매	상	하	아	나
□ 총합	12	10	1	0	1	
○ 계획	5	5	-	-	-	
○ 집행	3	3	-	-	-	
○ 성과	4	2	1	-	1	

2) 예산현황(억원)

2008(결산)	2009(결산)	2010(예산)
24	49	34

3) 성과계획

□ 성과목표 :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경찰관 교육을 내실화한다. (경찰보수교육)

□ 성과지표

	'06	'07	'08	'09	'10	'11
○ 직무능력 향상도(%)						
· 계획	80.0	82.9	92.0	93.4	95	95
· 달성	82.9	90.0	96.72	94.5		
○ 교육생 만족도(%)						
· 계획	65.5	75.7	85.6	88.1	86	86
· 달성	73.7	80.8	83.83	84.8		
○ 1인당 교육비 대비 직무능력 향상도						
· 계획	-	-	-	-	0.44	0.44
· 달성	-	-	-	-		

행하여 매년 실시하는 정부업무평가에서 우리 교육원은 경찰교육기관 중에서 대표로 선발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남들이 보기에 인정할 만하고, 보고서가 깔끔했다고 생각합니다.

(5) 법제 업무

경찰교육원의 자체 훈령·예규 총 21건은 모두 저를 통해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경찰교육원으로 명칭 및 정체성이 변경됨에 따라 경찰교육원 자체 훈령·예규 전부를 일일이 뜯어 보았고, 남들에게 시비거리 생기지 않도록 잘 해왔습니다.

상급기관에서도 매번 제가 속한 경찰교육원은 법제 업무가 깔끔하고 법령에 대해 이해가 깊다고 칭찬하였습니다.

(6) 기타

이 밖에 '경찰교육원'으로 변함에 따라 홈페이지의 개편안을 기획하였고, 가정학습 봉사활동 등 이루 셀 수 없이 많은 계획을 제가 세웠으며, 경찰교육원에서 행사하는 장관·경찰청장 이하의 모든 연설문 등은 모두 제 손에서 나왔습니다.

2. 컴퓨터 지식을 활용한 업무 혁신 사례

저는 업무를 해오면서 매년 남들과 똑같이, 지금까지 해오던데로... 해왔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달리 생각하려고 했고 조금 더 창의적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업무 혁신을 위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조금 배우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전 경찰조직에 전파되는 다수의 업무 혁신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1) 수사서류 작성 지원시스템

현재 2.0버전(현재 버전은 외부 업체 용역의뢰한 제품임)까지 나온 수사서류 작성 지원시스템은 초기 버전을 제가 개발했습니다. 물론 콘텐츠는 각지에서 온 베테랑 수사경찰들의 노하우를 축적한 것이고, 본청 지능범죄수사팀 실무반장님의 기획이 뒷받침되지 않았으면 탄생하지 않았겠지만, 프로그램의 엔진 자체는 전적으로 저의 순수한 땀의 결정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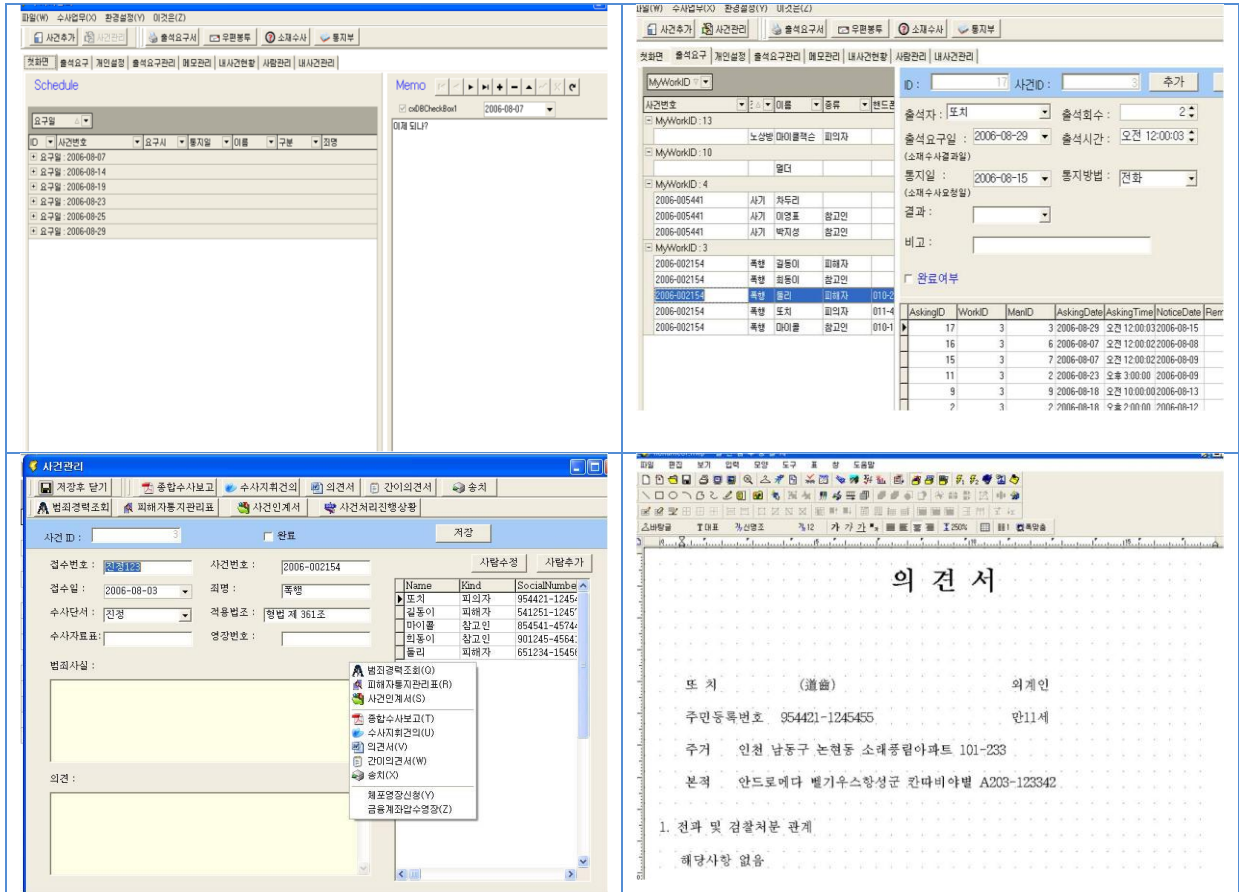
부족하나마 조금 아는 데이터베이스 지식을 통해, 수사 현장에서 자주 쓰는 경제범죄 총 477개의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 함으로써** 조사관들로 하여금 즉시에서 범죄유형별로 수사를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사관들의 보금자리인 「e-知's」를 통해 전국에 전파 되었으며, 많은 수사 경찰들이 이용하였고, 저에게 감사하다는 메일도 많이 왔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호평이 있었으며 경찰 수사의 혁신을 이루었다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때로 경찰 업무는 지나치게 굼벵이 같을 때가 있는데 이를 통해 업무 효율을 많이 이루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2) 수사도우미

제가 수사과에서 일하던 중 답답했던 것은 경찰업무는 너무 자잘한 일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수사서류에서도 매번 똑같은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타자해야 했고, 그것을 사람이 하다보니 오류가 가끔 생겼으며, 수많은 유형의 서류들을 매번 찾아서 지우고, 붙여쓰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21세기에 이러한 원시적인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고 안쓰러워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쁜 업무 중에서도 퇴근 후 힘든 시간을 쪼개고 쪼개어 약 1달간에 걸쳐서 「수사도우미」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수사업무에 있어서 단순하면서도 짜증나는 업무를 컴퓨터가 대신해 주게 됨으로써 사건 1건당 업무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는 경찰 뿐만 아니라 법원, 검찰 등 모든 유관기관이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대부분의 업무가 전산화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틀을 깨는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3) 기타

경찰업무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기술을 접목했던 것은 어쩌면 휴머니즘의 발로 일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경대에서 2년간 근무했는데, 수많은 부책에 힘들어하는 인사대원들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단위 전경대의 형편상 상급기관의 지시대로 부책을 많이 기록은 해야 하나 그것 때문에 대원으로 하여금 잠도 못 자게 하는 것은 또다른 가혹행위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경들의 인사 업무에 대한 통합 관리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고 이는 제주해안경비단 산하 전 경찰부대에 전파 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자잘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업무 혁신을 많이 이룬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 시대를 앞서 가려고 했고, 그러한 노력들이 현실화 되는 것도 보아왔습니다. 천학비재하고 특별한 능력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으나 매번 타성에 젖지 않으려고 했고 발전을 이루려고 하

였습니다. 주어진 일에는 압도적 열정으로 생명 에너지가 승화될 수 있는 극한을 쫓 피우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열정이 정의를 찾는 학문 탐구에서도 똑같이 기능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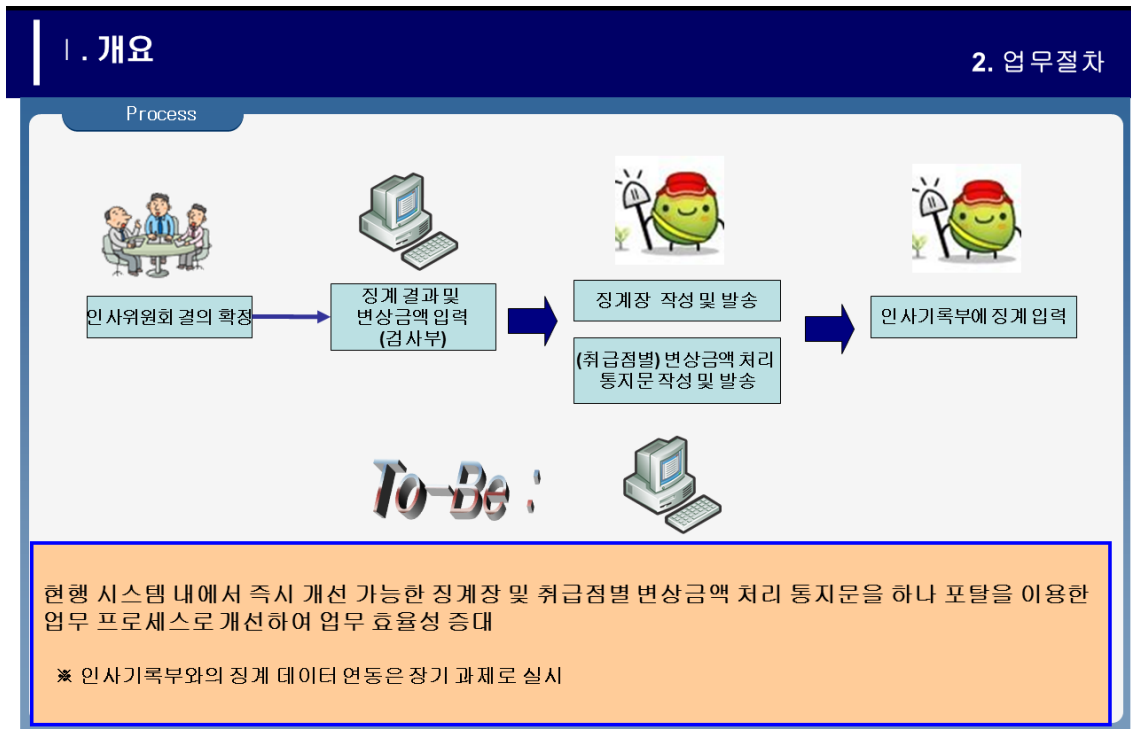
저는 하나은행에서 2010. 6. 14부터 정기 인사발령일인 2011. 1. 14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비록 7개월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 제가 해 온 일은 누구보다도 밀도 있고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사기업은 가장 큰 문제가 눈치를 보기 위해 밤 12시까지 일하면서도 막상 실제로 결과물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능력 부족일 수도 있고 타성에 젖어서 일 수도 있고, 제가 일하던 인력지원부는 아무래도 행정 업무다 보니 행정업무가 강한 경찰조직에서 온 제 관점에서 보면 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인력지원부에서 인사기획, 상벌, 연말정산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도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했다고 자부하는데, 주어진 일에 대한 저의 열정과 태도를 최대한 표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제가 조직을 혁신 했던 것을 위주로 기술하고자 합니다.

(1) 검사정보 시스템의 개선

은행에서의 상벌 업무는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극악의 업무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특채로 들어왔다고 괴롭히기 위해서 그 업무를 맡긴 것 같은 느낌도 들기는 합니다. 어찌되었건 은행 특성상 체계적 일처리의 경험이 부족해서인지 은행 내 모든 징계대상자를 본사에서 모두 심사하였고, 심사한 사람들에 대한 징계업무까지 모두 상벌 담당이 하였기 때문에 그 업무의 극악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 대부분의 징계 사유는 일종의 감찰부라 할 수 있는 '검사부'의 적발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검사부에서 구성요건이나 절차를 못 맞추는 것을 도와주느라 힘들기도 하였지만 그보다도 힘들었던 것은 반복 업무의 연속이었습니다. 반복적인 데이터의 입력이라던가 징계장의 작성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조금만 머리 쓰면 중복되는 업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았고, 컴퓨터를 이용하면 실수를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수많은 업무량을 사람의 힘으로 하다보니 과거 자료는 오류도 많았습니다.



검사부의 검사 업무 프로세스와 인력지원부의 징계처리 프로세스를 꼼꼼하게 분석하여, 새로이 검사정보시스템 개선안을 기획하였습니다. 전산부와 수차례 회의를 하였고,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여야 하였고 설득을 해야만 했습니다. 과거 프로그래밍을 취미로 했기 때문에 관련 지식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청사진을 제시했고 변화의 아름다움을 보여줬습니다.

수년 동안 그대로이던 시스템이 제가 들어온 이후 바뀌게 되었고 업무 효율은 높아졌습니다. 아무도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여 차마 못하던 것을 겁 없던 신인이 이루게 된 것입니다.

[첨부3 : 검사정보시스템 개선안 1부]

(2) 연말 정산 업무의 완벽한 수행

연말정산 업무를 담당하던 급여팀 직원이 출산휴가를 가는 바람에 그 업무에 경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출산휴가를 간 직원의 후임자가 새로 들어오긴 했지만 급여 업무는 할 수 있어도 연말정산 업무는 많이 배워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며 못한다고 하길래 어떻게 제 의사와 무관하게 제가 그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결국 체계를 제대로 못 잡아줘서 업무가 어려웠던 것이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에는 담당자의 전화가 불이 나고 화장실에도 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업무를 분석해보니 결국 소통의 문제였습니다.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어 주고 자주 물어 보는 질문들을 따로 정리해서 전자게시판에 게시를 했더니 직원들은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되었고 과거와 같은 전화기가 불 나는 사례는 생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은행에 근무하면서 항상 아쉬웠던 것은 일처리가 체계적이지 않다는 것이었는데, 그 이후로 주변 직원들은 제 얘기가 무슨 말인지 조금은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첨부4 : 연말정산 매뉴얼 1부]

(3) 규칙의 정리 등 기타사항

경찰 생활 중 법제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저에게는 규칙의 정리가 낯선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2010년 한 해 동안 하나은행은 Woori은행과 합병 논의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합병을 전제로 규칙에 대한 분석 및 통합 논의가 있었습니다. 양사의 규칙을 분석해서 토론회를 하기로 했는데 대부분의 인사부 직원들은 처음하던 업무이어서인지 불만만 할 뿐 막상 실제로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익숙한 업무여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다른 직원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잘 만든

보고서였나 봅니다. 결국 오히려 대부분 직원들이 '이런건 전문 컨설팅사에 문의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라는 태도로 일관하여 규칙 분석 토론회는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보고서가 칭찬을 받았기에 여기에 첨부하고자 합니다. 조잡한 보고서이지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태도입니다. 큰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또 업무가 아무리 짜증나고 어려운 일이어도 못한다는 말을 생각하지 못하고 할 수 있다라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제가 감히 남들보다 낫다고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있었기에 수면 시간을 줄여가며 업무 혁신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었고, 남들은 못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첨부5 : 상벌규정 분석 보고서 1부]

저는 늦은 나이에 정의와 소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2천년전 히브리 땅에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실명을 했던 것만큼이나 저에게는 인생의 충격적 사건이었습니다. 인생을 알지 못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툼을 몰랐던 어린 시절엔 법은 그저 실용적·후행적 학문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는 그저 일신의 영달을 위한 도구적 학문은 아닌가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어린 티를 벗고 나니 따뜻한 학문으로서의 법을 알게 되고, 정의실현의 무기로서의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사회는 법을 필요로 하고 법 없이는 못사는 사회입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법을 모르는 약자는 억울함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로관계는 아직도 부정의하고 소수의 사람을 위한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억울한 다수의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강자에 맞서 약자를 수호할 수 있는 법, 불합리에 대해 합리로 대응할 수 있는 무기로서의 법을 찾습니다. 이를 통해 소외된 자들을 위한 'The Street Lawyer'와 같은 따뜻함이 묻어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삶의 가치임을 깨달았나니, 무지몽매하고 비루한 저이지만 원컨대 감히 제가 가르침을 받고자 청원합니다. 끝.